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 강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읍기 강의는 수요 집회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는 목요 성서학당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체육대회가 다음 주일(10월 6일)에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 행사는 1시부터 이화여고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당일 어르신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운동화, 모자, 돗자리, 도시락, 물 등)

영월 친환경 저농약 포도와 산머루를 판매합니다. 포도는 5Kg에 27,000원 산머루는 2Kg에 20,000원입니다.

설거지 봉사자 신청 받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임선빈 씨(서정순 집사 딸)와 이은호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0월 3일 낮 12시 강남플라자웨딩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맑은 머리로 좋은 책을 읽읍시다. 특히, 책 중의 책인 성서를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합시다.

렘 32:1~3a / 시 91:1~6 답전 6:6~19 / 눅 16:19~31
--

잠 18:1-15

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유주연 조정자 문복순 이국노 다음 주 식당봉사 : (체육대회) 오늘설거지봉사 : 김종락 박영신 최미자 류준모 심호선 다음 주 설거지 : (체육대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과란 가을 하늘, 황금빛 들판, 빨갛게 익어가는 과일, 그 황홀한 광경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는 우리도 어찌지 못하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들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고 선한 기운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둡고 악한 기운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여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초가을 아름다운 풍광처럼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권미숙 김경수 김기석 김희우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
 김신실 이순용 김용진 박효선 김지윤 김철수 유영남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김희진 박홍재 류건형 이주은 박인혁 배근수 김금순 변재민
 이소혜 안길상 이형숙 양재성 임미심 오자영 이경남 이모운 이에서
 이우원 옥귀희 이정은 임승동 백혜숙 장아름 정종삼 정현모 조병주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최종원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홍성식 이유리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강명자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김민지 김일랑 이은옥 박병구 박상욱
 박시내 박창운 허정운 백묘현 이경희 이광석 이병수 이정은 정선희
 정운정 서효진 주우탁 정희선 한상익 정영선 한인철 조윤숙 한지혜
 홍복선 무명3

녹색꿈

강영님 김만균 노성희 김용진 김웅민 김재흥 송 명 유영남 정영례
 조은상 김소연 무명

장혜숙	백혜숙	송임희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박재란	노순옥
김재흥	최경미	이은옥	노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문영혜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조영순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강순배
이형숙	윤수진	이정은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송양진	정영선
박혜경	조항미	송임창	정영현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타오르는 책

그 옛날 난 타오르는 책을 읽었네
 펼치는 순간 불이 붙어 읽어나가는 동안
 재가 되어버리는 책을/
 행간을 따라 번져가는 불이 먹어치우는 글자들
 내 눈길이 닿을 때마다 말들은 불길 속에서 곤두서고
 갈기를 휘날리며 사라지곤 했네 검게 그을려
 지워지는 문장 뒤로 다시 문장이 이어지고
 다 읽고 나면 두 손엔
 한 움큼의 재만 남을 뿐/
 놀라움으로 가득 찬 불놀이가 끝나고 나면
 나는 불로 이글거리는 머리를 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곤 했네/
 그 옛날 내가 읽은 모든 것은 불이었고
 그 불 속에서 난 꿈꾸었네 불과 함께 타오르다 불과 함께
 몰락하는 장엄한 일생을/
 이제 그 불은 어디에도 없지
 단단한 표정의 책들이 반질반질한 표지를 자랑하며
 내게 차가운 말만 건넨다네/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읽어도 내 곁엔
 태울 수 없어 타오르지 않는 책만 차곡차곡 쌓여가네/
 식어버린 죽은 말들로 가득 찬 감옥에 갇혀
 나 잃어버린 불을 꿈꾸네

- 남진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갈 세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세상을 먼저 살아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이를 벗삼는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아멘. 새로운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셨고 앞서 이루신 세상을 우리도 꿈꾸며 이루며 살겠습니다. 대립과 반목의 영을 버리고 상생과 협력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모든 이를 친구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이형숙 권사

9	영접위원	한완식 정원석 강세기 임영선 김현영 이소애
	헌금위원	김인걸 장혜숙

믿음으로 읽는 글

나,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작고한 랍비 알베르트 프리들랜더는 나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서 계율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심어주었다. 언제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던 나에게 그는 만약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었다.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에 사방에서 괴롭히던 악의적인 반유대주의 선동에 당황하고 괴로워했다. 여덟 살 무렵의 어느 날 밤, 그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목록을 작성했다. 자신이 나치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단호하게 밝힌 것이었다. 그는 목록에서 자신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고, 마음과 정신에 특별한 자질이 있다며 그것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마지막으로는 만약 살아남게 된다면 그러한 특성들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맹세했다. ...

훗날 이집트의 위대한 무프티(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권위자)가 된 무함마드 압두는 식민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던 열등감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 자신과 문명화된 나라 사이의 속박이 형성된 그 시대에, 우리는 그들의 탁월한 지위와 우리의 초라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부와 우리의 빈곤, 그들의 자부심과 우리의 자기비하, 그들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 그들의 승리와 우리의 결함이 드러났던 것이다.

황금률은 자각을 요구한다. 다른 삶을 대하는 행동지침으로써 자신만의 감정을 사용하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쉽사리 그렇게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만큼이나 자신의 강점에 대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랍비 프리들랜더가 그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장점, 재능, 성취 등을 담은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

우리 모두에게 어두운 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을 따르는 심리학자들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며 때로는 꿈에서 드러나는 그다지 건전하지 않은 동기와 욕망 그리고 성향을 우리의 의식적이고 깨어 있는 자아로부터 숨길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설명

한다. 우리는 ‘영혼의 이 어두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잔인함에 빠져들거나, 기괴한 성적 환상을 품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보복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공포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가혹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성적 타락이나 폭력 혹은 잔혹함에 대해 통렬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성향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다른 사람들만이 사악하고 혐오스럽다고 믿고 있다는 징후가 될 수도 있다. ...

십자군은 무슬림을 살육하면서 이슬람교는 폭력적인 칼의 종교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으며, 그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숨겨진 걱정과 죄책감을 반영한 환상이었던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몰살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황의 권한을 앞세워 내키지 않아 하는 성직자들에게 독신의 의무를 지우려던 그 시기에,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가장 비열한 본능에 영합하게끔 만드는 종교라며 이슬람교를 비난했다. 당시 서유럽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욱 세련되어 있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십자군의 태도에는 현대의 제3세계 국가들이 강대국에 보이는 반응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무슬림을 향한 왜곡된 시각은 자신들이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질투에 뒤섞인 중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경쟁자인 무슬림에게 투사했던 것이다. ...

현재 지구 곳곳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이 겪는 고통의 평범함에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고통은 현실이다. 과거에 자신에게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을 -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외로움과 절망적인 공포를 느끼던 순간들, 거부와 배신 그리고 실패,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매정한 이야기들 - 의식적으로 되돌아보자. 그 순간순간에 완전히 빠져들기 위해 노력해보고, 당시의 자신에게 격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연습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이 황금률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찾아오게 될 보물창고다. 자신의 슬픔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카렌 암스트롱, 「카렌 암스트롱, 자비를 말하다」 중에서